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본격화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 총사업비 2조1916억원 규모… 교통혁신·균형발전 견인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지역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원으로, 이 중 1조772억원은 국비로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 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전주 중심의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전주~새만금을 잇는 동서축 광역철도 1개 노선(정차역 9곳)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건설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도로 사업은 10개 노선, 총연장 69km 규모로, 전주 외곽과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지역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전망이다.

광역철도는 전주역을 출발해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km를 운행하며, 동산·삼례·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역 등 9개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동서 간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

을 조성해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TX익산역과 광역철도 남군산역에 구축될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로서 환승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시군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요구와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과 간담회 및 실무 회의를 이어가며 국가계획 반영 논리도 한층 보강해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

어, "삶을 잇고 기회를 여는 전주권"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사형 광역 네트워크 완성 △산업·도시 성장축 형성 △지속가능한 교통 혁신을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가계획 반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역도 자본시장 교란 범죄 ‘몸살’ ... “엄벌해야”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 2020~2021년 각각 2건, 2022~2023년에 급증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2023년 27건... 2020년 이후 가장 높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4년 새 107.1%나 급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또한 2020년 829건에서 2022년부터 58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범죄들은 수법이 다양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사 주식의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거나,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 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전북도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2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2022년에는 12건, 2023년에는 11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4년 다시 2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거 인원 또한 2020년과 2021년 각 2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으로 급증하며, 특정 시기에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전북 지역에서는 2020년 24건, 2021년 11건, 2022년 12건, 2023년에는 27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0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전북에서도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빙자한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악질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만호 기자

“청년 체감 정책으로 꿈 실현”

민주도당, 20일 ‘청년의 날’ 맞아 입장 밝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오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

도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청년 체감 정책 추진으로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전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훈 부대변인은 “청년의 날은 우리 사회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전북 청년들이 겪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담, 자산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떠난 전북 청년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지역이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미래적금,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전 공모전

누구나 참여 가능·최우수상 200만원 등 시상…내달 1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관광의 매력을 담아낼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초 진행된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전북관광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슬로전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기간은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전북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응모자는 전북관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슬로전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앞서 진행된 키워드 공모전에는 3,900여명이 참여해 '전북 관광은 0000이다'라는 주제로 'K컬처', '힐링전국', '역사와 전통', '맛과 멋'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안됐다. 도는 이를

아울러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과 협력해 △청년 올인원타운 조성 △AI 융합 K-영화·영상산업 거점 구축 △차세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형 청년정책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당은 예비 청년 농업인과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창업농 초기 진입 장벽 완화, 실습 현장 환경 개선, 민간 공연장 인력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꾸준히 만나 정책 개선에 나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 창업자들과의 만남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은 “청년의 도전이 존중받고, 실패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빛나야 대한민국이 빛난다.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전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희망·화합의 무대... 정읍서 ‘전북 자활 어울 한마당’ 성황리

‘자활가족의 축제’ 도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80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체협 부스 운영 등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전북자활 어울 한마당에 김관영 도지사와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및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를 비롯해 약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25 전북자활 어울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어울 한마당은 자활가족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넘어, 도민에게 자활사업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를 비롯해 약

1,800여 명이 함께했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도, ‘2025 전북상품 MD 초청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디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0월 23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5 전북상품 MD 초청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중기 판로 확대 기대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40개 사가 참여해 롯데·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굴지의 오프라인 유통업체 6곳과 우체국쇼핑, 공영홈쇼핑, 11번가, 지마켓,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 5곳, 총 11개사 MD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그동안 문턱이 높아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 유통 채널과의 직접 소통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기대가 높다.

참여 자격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뷰티제품 등 소비재를 제조하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업체에 반드시 '제조'가 명시돼야 한다. 도소재업체나 벤더사는 신청할 수

없다.

윤여봉 경진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에 대형 유통사 MD들과 마주 앉아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기업들의 브랜드 홍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에서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도,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전주 하계올림픽·새만금 개발 등 도정 현안 집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 성과를 전국에 알린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 80개 기관이 184개 부스를 마

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와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36㎡ 규모의 독립 부스를 설치해 △로컬JOB센터 △새만금 고용특구 △창업·벤처 성과 등 도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집중 홍보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 민간투자 설명회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서... ‘제2회 전북포럼’과 연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1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 민간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회 전북포럼과 연계해 진행되며, 관광·숙박 개발 분야 민간기업과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정책을 민간 부문에 널리 알리고, 투자 여건과 제도적 지원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자연·치유·레포츠 중심의 체류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악관광은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풍부한 산악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민간과의 협력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산악관광 홍보 동영상 상

영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설명 △선도지역별 투자 기회와 지원 혜택 안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도지역별 세부 사업은 해당 시군 관계자가 직접 설명과 답변을 맡아 민간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등 관련법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악지형을 활용한 체류관광, 치유·레포츠·생태체험이 가능한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